

2052년 1인 가구 절반 65세 노인... 20대 부부 0.1% 불과

〈전체 부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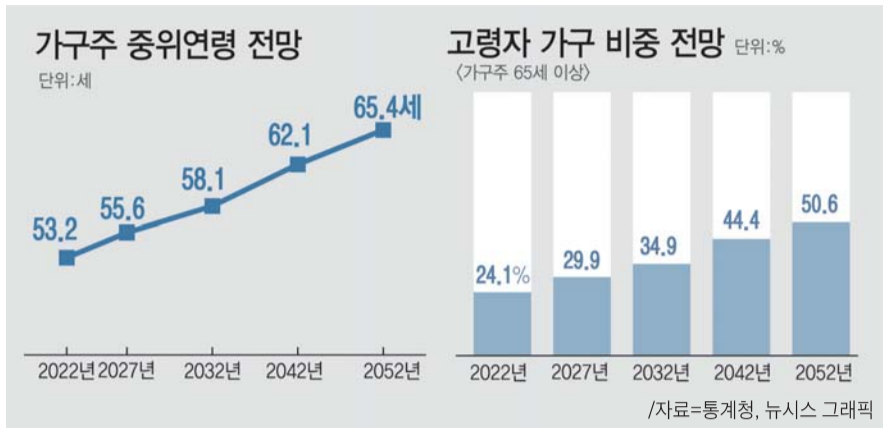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30대 부부 3.0%, 40대 3.3% 급감
70대 부부 37%, 80대 26%로 증가

앞으로 28년 후 국내 1인 가구(主)의 절반 이상은 65세이상 노인일 것으로 예측됐다. 그중에서도 80대가 전체 1인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부부 1000쌍 중 1쌍만이 20대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단, 이 통계는 최근의 가구 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작성됐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 65세이상 가구주비중은 26.0%(192만 가구)로 집계됐다. 30년 가까이 흘러 2052년에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51.6%(49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계는 내다봤다.



1인 가구 둘 중 하나는 65세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한다는 뜻이다. 특히, 1인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나이는 60대나 70대가 아닌 80대이상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로 구성된 가구 연령대도 점차 높아져 젊은 부부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전체 부부 가운데 20대 부부의 비중은 2022년 1.3%에서 2052년 0.1%로 크게 감소한다. 20대 부부는 사실상

보기 힘들 것이라 예측이다. 같은 기간 30대 부부 비중 역시 8.1%에서 3.0%로 급감한다. 40대(6.5→3.3%)와 50대(17.5→9.0%)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반면, 70대(22.9→36.9%)와 80세 이상(8.5→25.6%) 부부의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한다.

2022년 부부가구는 60대 가구주가 35.0%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는 70대 가구주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추계

는 봤다.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40대와 50대가 64.7%를 차지했으나 2052년에는 58.8%로 감소한다. 60대 이하는 모두 감소하는 데 반해 70대 이상만 증가하게 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한 부모 자녀가구 비중은 2022년 9.3%에서 2052년 7.6%로 소폭 줄어든다. 2022년 한 부모 자녀가구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2.2%로 가장 많았다. 2052년에도 50대(32.8%)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봤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는 2166만4000개로 전년대비 1.84%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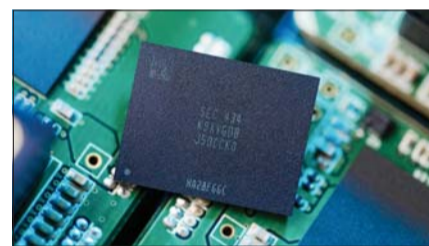
가했다. 이후 2041년에 2437만 2000가구가 정점을 찍고, 2052년에는 2327만 7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구증가율은 2042년부터 꺾여 2052년에는 -0.73%로 주저앉게 된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분화로 인해 2041년에 정점에 이른다. 3~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1인 가구로 나뉘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가구는 증가하는 셈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2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2년 1.81명까지 줄어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세계 첫 'QLC 286단 낸드' 삼성 "AI 반도체 이끌 것"

전작대비 데이터 보존성능 20% ↑ 쓰기 100%, 입출력 속도 60% 개선



삼성전자가 1테라비트(Tb) 용량을 갖춘 퀴드레벨셀(QLC) 9세대 낸드플래시를 업계 최초로 양산한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 초고용량 서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위한 9세대 V낸드(사진)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 9세대 V낸드는 '채널 홀 에칭' 기술을 활용해 더블 스택 구조로 업계 최고 단수를 구현해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 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이번 QLC 9세대 V낸드는 셀과 페리의 면적을 최소화해 이전 세대 QLC V낸드와 비교해 비트 밀도가 약 86% 증가했다.

V낸드의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층간·층별 셀 특성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V낸드 제품이 '디자인드 몰드' 기술을 활용해 전작 대비 데이터 보존 성능을 20% 높였다"고 설명했다. 디자인드 몰드는 셀 특

성 균일화 및 최적화를 위해 셀을 동작시키는 워드라인(WL)의 간격을 조절해 적층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QLC 9세대 V낸드가 이전 세대 제품보다 쓰기 성능은 100%, 데이터 입출력 속도는 60%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낸드 셀을 구동하는 전압을 낮추고 필요한 비트라인(BL)만 센싱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한 '저전력 설계 기술'로 데이터 읽기, 쓰기 소비 전력도 각각 약 30%,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부사장은 "9세대 TLC 양산 4개월 만에 9세대 QLC V낸드 또한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AI 용 고성능, 고용량 SSD 시장이 요구하는 최신 라인업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암! 치료비가 커질수록 보장금액도 커져야 하니까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무)

예상하지 못했던 암보다 더 예상하지 못했던 암치료비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무)는 치료기간이 길어져도 치료비가 커져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보장해주는 빈틈없이 균형잡힌 보험입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무)

☎ 080.365.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 직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로부터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본 상품의 특약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은 10, 20, 30년 주기로 갱신되며 특약별로 상이합니다 (최대 100세).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4786호(2024-07-30 ~ 2025-07-29)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4-07-031

www.hanwhalife.com

콘서트표 웃돈거래하면 '형사처벌'

권익위,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방안

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매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암표 판매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 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매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으나,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최근 유명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 열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